

### 사람 얼굴과 똑 빼닮은 원숭이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사람 얼굴과 표정을 똑 빼닮은 원숭이가 발견돼 화제다.



중국 저장성의 사오싱 동물원에서 포착된 이 원숭이는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턱 밑으로 난 수염과 구레나루까지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원숭이는 최근 동물원을 찾았던 관광객 양 모 씨가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15일 사오싱 동물원을 찾은 양 씨는 동물원을 구경하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고개를 돌렸는데, 인간의 얼굴을 가진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 흥미로운 사연을 SNS에 공유했다.

양 씨가 공개한 사진 속 원숭이는 곧장 SNS에서 큰 화제가 됐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40대 남성 얼굴을 한 원숭이는 처음 본다"면서 "사회 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탈모를 겪는 40~50대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얼굴인식 프로그램도 통과할 만한 얼굴이라서 양 씨가 충분히 놀랄 만 했다"는 등의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사진에 대해 양 씨가 조작, 합성한 가짜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을 정도로 공개된 사진 속 원숭이의 부릅뜬 두 눈과 딱 벌어진 입, 놀란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 사람의 얼굴과 흡사했다.

연일 이 원숭이의 진위 여부가 화제가 되자, 해당 동물원 측은 관심이 집중된 이 원숭이가 실제로 동물원에 서식 중인 꼬리감는원숭이과의 검은머리카푸친 원숭이라고 밝혔다. 주로 남아메리카를 주요 서식지로 분포하는 영장류였지만, 최근에는 유독 네모난 얼굴형과 사람을 꼭 닮은 외모로 인기를 얻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포유류다.

일반적으로 수컷이 암컷보다 큰 데, 마치 사람처럼 입술을 움직이고 눈을 크게 뜨는 등 사람을 연상케 하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유명하다. 평소에는 코코넛과 딸기, 바나나 등 과일을 즐겨 먹으며, 동물원 측은 특별한 날 '특식'으로 각종 견과류와 곤충이 첨가된 포상을 제공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얼굴 형태는 물론이고 표정까지 사람과 흡사한 탓에 중국에서는 '인면승이'라는 별칭이 생겨났을 정도로 화제가 됐다. 이 때문에 연일 이 원숭이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검은머리카푸친 원숭이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 준위협종(Near Threatened)에 속한다. 같은 적색목록 준위협종에 속하는 또 다른 동물로는 한국의 독수리, 흑비둘기 등이 있다.

사진=proceso.com

### 마약 운송 터널 때문에 잠자다 쿵!



거실에서 잠을 자던 청년이 지반이 무너져 지하로 떨어졌다 구조됐다.

멕시코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살고 있는 마르틴 리오스(26)는 최근 거실 소파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새벽 3시30분쯤 공음과 함께 지하로 추락했다. 리오스는 "여기가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가 엄습했다"고 말했다.

리오스는 도와달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잠에서 깬 가족들이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달려가 보니 아들은 온데간데없고, 거대한 구멍이 뿔뿔이 뚫려 있었다"고 말했다.

2m가 넘는 지하로 떨어졌던 리오스는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리오스는 "꿈에서 지옥에 다녀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리오스가 떨어진 곳은 마약카르텔이 마약 운송을 위해 몰래 판 지하터널이었다. 약 10년 전 멕시코 군은 마약카르텔이 리오스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한 주택을 임대해서 지하터널을 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여 지하터널의 입구를 봉쇄했다.

싱크홀이 생긴 곳은 바로 지하터널이 지나가는 곳이었다. 10년 가까이 방치된 터널의 지지대가 노후화하면서 리오스를 삼킨 싱크홀이 생긴 것이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쿨리아칸 당국은 부랴부랴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카르텔이 판 지하터널이 밑으로 지나가는 가정주택이 최소한 10여 곳에 달해 다른 집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yule.yjcf360.com

### 경찰로 위장한 무장강도단

완벽하게 경찰로 위장한 대규모 무장 강도단이 불심검문을 이유로 선량한 시민을 불러 세운 뒤 자택을 털 사건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최근 발생했다. 콜롬비아 경찰은 현상금까지 걸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지만 용의자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타는 것과 동일했다. 검문하는 시늉을 끝낸 강도들은 피해자를 자력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폭행을 가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결국 현금 1만 5,000페소(약 4,000달러)를 내줬다. 현금과 귀중품을 챙긴 강도들은 "절대 뒤따라 나오지 말라"며 공포를 두 번 쏘고 집에서 빠져 나와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상금까지 내걸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CCTV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진짜 경찰과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진짜 경찰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CCTV 캡처



## Thank You Dental!

Implant Orthodontic General Dentistry



### Special 1

**Free Consultation**

Digital panoramic X-ray

### Special 2

**Implant \$2,000**

환자 맞춤 이식 및 관리  
뼈이식시 자가혈 치료 무료  
(Reg. \$500)

### 뼈가 부족하거나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Thank You Dental에서는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CBCT 구비, 자가혈 CGF 치료, 최상의 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

풍부한 임상 경력, 임플란트 전문, 일반치과, 교정치과, 전문 치위생사와 함께 일하는 원스탑 종합 치과

**OC (714) 772-5656**

1721 W. Katella Ave #A, Anaheim, CA 92804

한인 담당 매니저 Annie

임플란트, 구강외과 교정 전문의 일반 치과 치위생사

Dr. Michael Ahn  
Dr. Dan Nguyen  
Dr. Young Kim, Dr. Hoang Viet  
Kelly Nguyen, Mindy Pham

각종 보험 (PPO) 메디칼 환영